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 필요성 연구

전 영 재*

국문초록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의 문제가 노년의 주요한 과업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는 그리스도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이 웰다잉이라는 동일한 명칭 아래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웰다잉'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명칭 '성경적 웰다잉'을 제안한다. 웰다잉은 인간의 주체성이 삶을 추동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좋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결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성경적 웰다잉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바라보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적 웰다잉 교육은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에서 주장한바,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간의 삶과 죽음, 영생, 천국과 지옥, 죽음에 대한 태도, 성화된 삶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주제어: 웰다잉, 웰다잉 교육, 성경적 웰다잉, 죽음준비교육, 성경적 상담

* 한국기독교가족상담센터 연구원

I. 여는 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2023)가 2023년 1월 15일에 발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44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약 9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으며, 그중 65세 이상 여성이 20.1%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였고, 65세 이상 남성은 15.9%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통상 UN의 기준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초고령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인간의 일생에서 노년기가 늘어나고 노인의 수가 증가함은 인간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총인구가 51,558,034명이며, 지난 2022년 일 년 동안 한 달에 적게는 24,920명, 많게는 44,611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 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37만 명가량 되는 셈이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겪으면서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죽음 불안을 느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748,125,110명이 공식적으로 확진되었고 6,932,207명이 사망하였다(질병관리청, 2023). 특별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 노인들은 더욱 죽음 자체와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서 고독과 우울, 불안을 겪었다(한규량, 2021: 179). 삶과 죽음의 거리가 밀착되어 주목받으면서 죽음이 더는 남의 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든 맞이할 수 있음이 의식화된 것이다. 이 외에도 자살의 문제, 존엄사라고 불리는 안락사의 문제, 낙태, 고독사 등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이 남아있다(차유채, 2023; 조은아, 2023).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과거 2000년 이후 등장한 ‘웰빙(well-being)’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발로였다면,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죽음의 문제에서 특별히 안락사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샌가 나타난 ‘웰다잉(well-dying)’은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여 잘 죽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기란, 최기호, 2009;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웰다잉은 인생의 행복한 끝맺음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준비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김석란, 2016). 그러

므로 웰다잉은 인간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며 인간의 인간다움 즉 인간의 존엄, 품위, 편안함, 행복 등에 대한 희구가 내재하여 죽음 자체에 초점이 있다. 이에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관련 교육, 또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죽음을 잘 준비시키려는 교육과 연구들이 광범위하게는 웰다잉의 자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에는 웰다잉 교육과 죽음준비교육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산하 죽음교육연구센터에서 한국싸나톨로지협회와 한국죽음교육학회와 협력하여 죽음학(Thanatology)에 기초를 둔 영적 돌봄 프로그램(여기에서의 '영적 돌봄', '영성치유'는 성경이 아닌, 평안하고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개인의 마음과 영혼을 돌봄을 의미함)과 죽음 교육 전문가(죽음 교육 지도자, Thanatologist)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에서는 웰다잉을 위한 학술 연구나 서적을 출판하고,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림대학교에서는 생사학(生死學)연구소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별히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힘쓰고 있다. 이를 보면 웰다잉뿐만 아니라 죽음학, 생사학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죽음학은 서구에서 죽음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관심이 고대에서부터 누적되다가 1903년 Ilya Ilich Mechnikov(1845-1916)가 노인학(Gerontology)을 연구하던 중 처음으로 '싸나톨로지(죽음학, Thanatology)'로 명명한 개념이다(한림대학교, 2023). '생사학(生死學, life and death studies)' 또는 '사생학(死生學)'은 서구의 죽음학을 동양의 관점에서 재정의한 것으로, 죽음학이 죽음에 관심을 둔다면 생사학은 삶과 죽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이다(한림대학교, 2023).

정리하면 죽음학과 생사학은 학술적 용어에 가까워서 죽음학은 서구의 고대 문명으로부터 관심을 두어온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생사학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죽음의 의미에 접근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죽음준비교육은 다가올 죽음을 준비시키는 보다 좁은 범위의 교육적 의미에 초점이 있다. 웰다잉 또는 웰다잉 교육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고 싶어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 즉, 더욱 광범위한 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요청이 함의된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학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웰다잉의 용어를 취하기로 하였다.

박종현(2014: 81-88)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미국과 독일, 스웨덴에서 체계

적인 죽음준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Alfons Deeken에 의해 죽음준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연령에 맞는 죽음준비교육을 하고 있고, 영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긍정적 비탄(Good Grief)’이라는 안내서를 비롯하여 커리큘럼에 상실 체험과 비탄을 다루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호주와 스웨덴에서는 특정한 계기인 사회적 재난 이후 비탄과 죽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흥미롭다(박종현, 2014).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준비하는 죽음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잘 준비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 ‘웰다잉’, 죽음에 도달하는 나의 어려움이 핵심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지 않는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실의 아픔으로 인하여 비탄에 빠져 통곡하며 슬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환송 예배의 절차에 따라 고인을 환송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담은 찬양을 부른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슬픔과 비탄을 이기지 못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고인이 된 사랑하는 이를 매장할 시 고인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함께 넣는 일도 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는 깊은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움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담대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죽음에 관한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가 수반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삶을 향한 자세가 더욱 건강하여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준비교육이 고민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준비교육과 일반 사회에서 웰다잉 교육 또는 죽음준비교육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유사하여서 뚜렷이 구별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일반적인 웰다잉 교육에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가미된 혹은 그 반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향한 태도와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죽음의 인식과 삶의 대응에 대한 다른 교육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언약 아래 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고찰 위에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펴는 글

1. 인간과 죽음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특별하게 관계된 것으로 본다. Herman Bavinck(2007: 174)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하여 그 창조 사실뿐 아니라 창조의 방식까지 기록하는 성경의 특별한 관심이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자 결말이며, 주제와 핵심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창 1:26-27). 원형을 반영하는 형상으로서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인 동시에 완벽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있다(Berkhof, 1996). 그러므로 인간은 땅의 흙으로부터 지어진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위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된 영적이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다(Bavinck, 2007).

비록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으며, 타락하여 왜곡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최홍석, 2005).

Mark Driscoll와 Gerry Breshears(2012: 188)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며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여 싸움으로써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성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된다고 하였다(Driscoll & Breshears, 2012: 188-191).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존재의 실존은 이미(already) 받은 완전한 구원과 아직(not yet) 도달하지 못한 불완전성 사이에 있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일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따르는 동시에 인간의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있다(Berkhof, 1996; Owen, 2009).

2) 언약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규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조건을 통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Driscoll & Breshears, 2012).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렘 31:33)이라는 관계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써 주도적으로 확증하신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지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비록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와 타락이 있을지라도, 그뿐 아니라 이후의 셀 수 없이 많은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롬 5:8) 하셨다. 이 확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것이다.

Bavinck(2007: 210-211)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사람인 아담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부하였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절대적 확실성의 부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생과 미래의 생의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8-29)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매인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의지적이고 강권적으로 보증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롬 8:39). 이 확증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골 1:15)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빌 2:6)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이(엡 4:24; 례 11:45) 충만하시다. Anthony A. Hoekema(1990: 131-133)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으로 무엇과 같은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지향성, 이웃을 향하신 사랑,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으며,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Bavinck, 2007).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셔서 믿는 자마다 그의 의를 덧입어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요 3:16), 구원하시리라는 강권적 의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죄악 된 인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롬 8:34),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천국으로 이끌어가신다(Donnelly, 2013: 167-17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일 첫 문답은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가 주를 믿는 자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의 견고한 위로를 이야기한다(Ursinus, 2006: 61-63).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롬 1:17).

이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롬 8:36)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담대함(빌 1:20-21)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Abraham Kuyper와 Louis Praamsma의 선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주장한다(Praamsma, 2011).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3) 죽음, 사망, 종말 그리고 영생

종말론(終末論, eschatology) 또는 내세론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교리를 의미한다. 헬라어 ‘eschatos’는 영어의 ‘end’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마지막, 완전한 것과 숭고한 것, 질적이고 평가적인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 이 용어의 원시적이고 직접적이며 신화적인 의미는 “모든 날들의 사슬의 마지막”이다(Tillich, 2010).

종말론은 종말의 진행 과정 즉 세계와 인류, 사건이나 시간이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제로 운명의 궁극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개인적 종말론(individual eschatology)은 개인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의 죽음, 부활, 심판, 영생의 문제를, 일반적 종말론(general eschatology)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등의 문제를 다룬다(가스펠서브, 2013).

죽음은 일반 사회적 의미에서의 죽음 곧 심폐 기능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으로써 육체 생명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Berkhof, 1996).

박형룡(1977)은 인간의 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형벌(刑罰)이다(롬 6:23).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단 한 사람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사망을 생명의 자연스러운 종말로 다가오는 존재의 종지(終止)나 멸절로 보는 자연적 사망설에 반대하고, 성경의 사망관은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physical death),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 또는 믿음 없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는(사 59:2) 영적 죽음(spiritual death),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악인의 영혼과 육체가 최종적으로 당하는 영원한 고초(계 20:14)인 영원적 죽음(eternal death)을 포함한다(박형룡, 1977). 영원적 죽음은 일반적 종말론에서,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은 죄의 교리와 관련되어 고찰된다(박형룡, 1977).

영생(eternal life)은 영원한[永] 생명[生]이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요 17:3; 롬 5:21).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딤후 1: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요 10:28)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롬 6:23) 누구라도 성경의 진리를 따라(요 5:39, 20:31)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가스펠서브, 2013). 그러므로 사망은 신자들의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생의 시작이다(박형룡, 1977). 영생을 기대하게 하는 이생의 관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하늘에 마련하여 주신 본향 찾는 자들의 돌아갈 곳이다(히 11:14-16).

하나님께서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롬 2:7).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며(요 3:16)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골 1:20) 죄악 된 인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골 1:13).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간을 구속(拘束)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셨으며(롬 8:2)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시면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진리에 따라 몸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의로 말미암은 영은 살아 있는 것이다(롬 8:10). 이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으로 귀결된다. 이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기에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으로, 그와의 영원한 관계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자유

로워졌으며 결코 정죄함이 없을진대(롬 1:1-2)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맞이하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의문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박형룡(1977: 59-61)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수난과 사망이 죄에 부과되는 형벌이 전혀 아니며, 은혜의 경륜에 있어서 그들의 영적 진보와 천국에 최선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관념 또는 인식, 주변인의 사망으로 인한 영별(永別), 질병과 수난,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의식 등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의 태도를 정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들이어서 이로움이 있다(박형룡, 1977).

2. 성경적 웰다잉이란

1) 웰다잉에 관한 선행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웰다잉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핍으로써 일반인과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고,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Biblical well-dying)을 제안한 후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2016: 120-121)가 정의하는 웰다잉은 잘 준비하여 후회 없이 죽음을 맞는 것,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장례만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남은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준비함으로써 노후를 잘 보내고자 하는 웰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웰다잉을 위한 방법으로는 죽음에 대하여 공부하고 명상하며 유서와 유언장, 자서전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에게 사랑의 태도를 가지며,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봉사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치료 가능성이 없을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사전의료의향서와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를 준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한다(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2016: 121-123).

웰다잉이 다가올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잘 죽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주체적인 인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웰다잉의 핵심은 인간에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격이라는 주장에 있다(맹주만, 2016: 188). 그래서 웰다잉을 이야기할 때 존엄사라고도 불리는 안락사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게 된다. 웰다잉의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마침표이기 때문에 인생

은 잘 살다가 인간의 위엄과 존엄을 지키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좋게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이 가진 삶과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웰빙은 웰다잉으로 종결된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을 제시한 이이정(2006)의 연구에서는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미래의 준비나 현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거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 개념을 재정립하는 의미 부여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죽음준비교육의 목표를 학습자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죽음과 관련된 실제적인 준비를 하도록 원조하여 인간적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웰다잉 프로그램에는 노화와 질병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 작성, 죽음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유언장 작성, 신상명세서 작성, 장례 체크리스트, 사진을 이용한 인생 회고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최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과거를 돌아보며 자서전을 쓰고, 안락사와 존엄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기,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장례 계획 세우기, 유언장 작성, 용서와 화해,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장미숙(2017)의 연구에서는 삶을 의미 있고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의 의미, 죽음의 문화적·철학적·종교적인 이해, 존엄한 죽음 이해하기, 만성 질환 예방법, 사전 의료의향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예방, 버킷리스트, 사별과 상실, 남은 자에게 쓰는 편지, 유언과 상속, 상장례 문화, 웰다잉 실천 선언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당시 이루어지던 웰다잉 프로그램의 다양한 주제와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표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들

저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
이이정(2006)	노화와 질병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 작성, 죽음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누기, 유언장 작성, 신상 명세서 작성, 장례 체크리스트, 사진을 이용한 인생 회고 등
최은주(2015)	죽음과 관련된 감정 나누기, 자서전 쓰기, 안락사와 존엄사,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장례 계획 세우기, 유언장 작성, 유산, 용서와 화해, 상실의 경험 나누기,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

장미숙(2017)	웰다잉의 의미, 죽음의 문화적·철학적·종교적인 이해, 존엄한 죽음 이해하기, 만성 질환 예방법, 사전의료의향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살 예방, 버킷리스트, 사별과 상실, 남은 자에게 쓰는 편지, 유언과 상속, 상장례 문화, 웰다잉 실천 선언 등
-----------	---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상술한 웰다잉의 자장 아래 있는 것으로서 죽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죽음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부정적인 태도,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이이정, 2006: 54). 이를 통해 웰다잉 프로그램은 죽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죽음이라는 주제의 노출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웰다잉 관련 연구들은 노인학, 노년학, 노인복지, 죽음학, 호스피스 등 인접한 다양한 학문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것인지, 죽음과 관련하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너무 늦기 전에 들어가야 할 죽음학 강의(최준식, 2014)’, ‘내 인생 저만치에 죽음이(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2017)’,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Tisdale, 2019)’, ‘죽음의 품격(윤득형, 2020)’ 등의 인문교양서적이 다수 출판된 바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에서는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양성, 웰다잉 강사 파견, 삶과 죽음 세미나, 심리상담, 웰다잉 연극단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대학 산하 연구소를 중심으로 웰다잉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구별된 정의와 명칭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 역시 이미 있었다. 박형룡(1977)은 그의 저서 ‘朴亨龍博士著作全集 來世論’에서 사람의 육체적 죽음의 성격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신자(성도)의 죽음이 지니는 의의와 태도 곧 공포를 극복하고 준비하며,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한 바 있다. 또한, 죽음 이후 고인의 시신을 매장할지 아니면 화장할지의 방법까지 다루었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일반적인 웰다잉 관련 연구가 인접 학문과 더불어 연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노년의 삶과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 및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기독교계에서는 강종철의 연구에서 1990년에 기독교 노인에 관심을 두고 노인대학과 노인상담에 대하여 짧게나마 다룬바 있다(강종철, 1990). 1998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교육부에서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을 발간하여 노년학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일반적인 노인학 이론들, 실제 노인의 특성 등을 다루었다(장대숙, 1998). 2001년에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내 노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각 교회의 노인(경로)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핀 바 있다(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2001). 이 외에도 기독교 노인 교육과 상담, 복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최광현, 2005; 이덕식, 2013; 김성호, 2019). 이와 더불어 노인뿐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학적이거나 사회적인 죽음과 성경에 나타난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죽음과 관련하여 노인의 영적 돌봄에 관한 상담적 접근 또한 꾸준히 있었다(류혜옥, 정진희, 2004; 박노권, 2005; 이원일, 2010; 안석, 2011). 이를 보면 기독교계에서도 노인과 교육, 상담, 복지, 돌봄, 죽음에 관한 폭넓은 관심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위에 실제 만들어진 웰다잉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정정교(2011)의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을 설정하면서 죽음학자인 Elizabeth Kubler-Ross와 Deeken의 이론을 가져와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는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의 목표를 신앙의 토대를 언급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관심과 마음의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죽음으로 향하는 당사자의 문제와 이해를 돕고, 또 자기의 죽음을 사색하는 것에 두었다(정정교, 2011: 46-49). 이로 인하여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만다라 이미지를 그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웰다잉 프로그램의 형태에 기독교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프로그램은 죽음에 대한 만다라 이미지 그리기, 죽음 후의 삶 묵상하기, 자신의 죽음 분위기가 어떻게 상상하기, 인생 지도 그리기, 인간관계 점검하기, 호스피스 관련 교육, 임종자의 심리적 단계 이해하기- Kubler-Ross(1998)의 죽음의 5단계 배우기, 입관 체험하기, 영정사진 찍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종현(2014)의 연구에서는 “죽음교육 선진국들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이 요청된다”라고 한국 교회의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촌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방송 영상을 활용한 설교 세미나를 실시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주보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게시하였다. 이는 웰다잉으로서의 죽음준비교육 세미나가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에 도움이 되기를 의도하되, 영상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

여 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들의 연령과 신체적 특성,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장경희(2017)의 연구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 품격 있는 죽음, 상실의 치유, 최후의 만찬, 유언장 작성, 세족식, 입관체험, 유언 나눔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표 2〉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들

저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
정정교(2011)	죽음에 대한 만다라 이미지 그리기, 죽음 후의 삶 묵상하기, 자신의 죽음 분위기 상상하기, 인생 지도 그리기, 인간관계 점검하기, 호스피스 관련 교육, 입관 체험하기, 영정사진 찍기 등
박종현(2014)	공영방송(SBS, MBC)의 다큐멘터리(‘유언-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하여’, ‘안녕 아빠’, ‘풀빵 엄마’ 등)를 활용한 세미나 실시
장경희(2017)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 품격 있는 죽음, 상실의 치유, 최후의 만찬, 유언장 작성, 세족식, 입관 체험, 유언 나눔 등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활동들이 있다. 내가 죽을 때의 기분과 주변인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며 죽음 묵상하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 인생 돌아보기, 묘비명 작성하기, 유언장 작성하기, 남은 자에게 편지쓰기, 입관 체험하기, 장례 절차 배우기, 장지 체험해 보기, Kubler-Ross나 Deeken 같은 죽음 학자의 이론 배우기 등이 그렇다.

이와 같은 교육들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그러나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죽음의 주제를 상기시키며 준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물론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인 웰다잉 프로그램의 활동들 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학문적으로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웰다잉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만큼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고민할 부분이 남아있다.

2) 성경적 웰다잉의 정의와 특성

이 장에서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감과 후회 없는 죽음을 주장하는 세상적인 웰다잉에 반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을 제안한다.

성경적 웰다잉은 영생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절대 불변의 진리이다. 세상의 가치들은 불확실하고 유한하여서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인간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휩쓸리기 쉽다. 이에 대하여 David Powlison(2009: 301)은 인간의 느낌의 의사결정과 대중적인 상담의 근거가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여 세상의 불확실성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 욕망과 신념을 꿰뚫는다고 하였다. 죽음이 두려운 것 같고, 과거 지인의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둡기만 했던 것 같고, 나의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을까 걱정되고, 쓸쓸하고, 떨리고,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이 산재한 시대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계시된 기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적용되고 역사된다(Bavinck, 2007: 465).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위임받은 믿는 자들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이미 가졌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음으로써 성경적 웰다잉은 말씀 외의 세상의 이론과 활동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의 영생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이 나타내기를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Kuyper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Praamsma, 2011). 성경적 웰다잉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이 땅에서의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눈으로는 나중의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지금의 손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영생을 확신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다(Ursinus, 2006).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자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웰다잉은 말씀을 기반으로 권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필요한

진리를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전하는 것이다(Powlison, 2023: 69).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빌 3:14)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꽃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있다.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보내심을 받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믿음 없는 자들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고 탄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하여 진리를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롬 10:13-15).

Jay. E. Adams(2001: 89)가 도입한 권면적 상담,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원리와 실천대로 상담하여 각 사람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권면적 상담은 가르치고 훈계하되,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부터 나온 선한 동기로 인하여 언어적으로 권면하는 것이다(Adams, 2001: 80-88). 권면적 상담의 방향성은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다. 일반상담이 문제 행동의 원인을 과거의 시점이나 문제에서 찾아 원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권면적 상담은 문제의 원인이 인간의 죄 된 본성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Adams, 2001).

성경적 웰다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장을 쓰고, 나의 장례식 분위기가 어떨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나의 감정이 어떠할지 묵상하고 입관 체험을 하며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웰다잉은 말씀을 권면함으로써 내담자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와 이후의 영생을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몰랐던 것은 알게 되고, 이미 알고 있다면 거듭 권면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

성경적 웰다잉 교육이 죽음에 관한 바른 지식 곧 말씀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취할 때, 상담자인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특별히 다른 이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노년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지 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상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 관리하며, 알고자 하는 이들의 영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Adams(1981: 98-101)는 좋은 상담자의 자질로서 선함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롬 15:14). 진정한 상담은 정보를 나누어주어 조언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교훈인 말씀을 인간의 문제에 적용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지식이 필요하고, 권면적 상담은 상담자가 가장 깊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선한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Adams, 1981: 100-101, 108). 권면적인 상담자는 성경을 잘 알도록 요구되므로, 잘 준비된 목회자는 가장 탁월한 상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Adams, 1981: 100-101).

3)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대 효과

(1)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예시

이 장에서는 범박하게나마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시한 후 다음 장에서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경적 웰다잉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실제로 교육할 때에는 프로그램 참가 대상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역별 특성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를 회차별 내용으로 구분하여 <표3>으로 제시하였다.

<표 3>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회차별 내용 예시

회차	프로그램 내용
1회차	성경적 웰다잉의 필요성
2회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① -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3회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② -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4회차	천국과 지옥
5회차	죽음에 대한 태도
6회차	성화된 삶을 향하여
7회차	질의 응답

1회차와 2회차, 3회차의 내용은 앞서 II.1과 II.2.2에서 다루었으므로 간략하게 다룬다. 먼저 1회차는 전체 프로그램의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경적 웰다잉의 필

요성을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왜 성경적 웰다잉을 알아야 하는지, 성경적 웰다잉이 무엇인지를 권면한다.

2회차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롬 12:2)하여 지은바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하여 전할 수 있다.

3회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한다. 이로써 2회차와 3회차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전할 수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로 관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이관직, 2012: 77-78).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죽음 이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인간을 사랑하사 값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아래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간의 삶과 죽음, 영생이 지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곧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눅 9:23) 삶을 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알아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을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견딜 수 있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른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목적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여 나아갈 수 있다.

4회차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전한다. 인간의 인지와 상상은 유한하여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천국과 지옥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Donnely, 2013: 143).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이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쉬운 것이다. 바울은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라고 말하여 천국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곧이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고(고전 2:10) 하였다. 천국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크고 장엄한 것이지만, 인간은 성령으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알 수 있다(Donnelly, 2013: 147).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이 도우사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보고 알게 하신다(Lane & Tripp, 2009: 299). 그러므로 천국에 대하여 배우고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다(Donnelly, 2013: 148-166). 눈물과 아픔, 사망, 애통, 수고와 결핍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계 21:3-4). 그러나 무엇보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Driscoll & Breshears(2012: 559)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 슬픔과 고통, 결핍이 없는 것도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되지만, 믿는 자의 가장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히 12:2) 삶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또한, 성경적 웰다잉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전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한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것이다. 지옥은 그곳이 세상의 감옥과 같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형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끔찍하고, 그것이 더 나은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과 그것을 준비하기를 경고하는 지옥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Donnelly, 2013: 44-71).

5회차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주변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전한다. 박형룡(1997)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이 생의 종말이 아니라 연속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동시에 훈련과 징계의 정점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깨어 있어 준비하며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2)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야 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담대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Martin Lloyd-Jones(2008: 261)는 이 시대와 세대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며, 삶의 무의미함과 무목적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절대적 의미와 불변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를 충족하여 주신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인간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실되고 가장 큰 존재의 두려움은 실상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Lloyd-Jones, 2008: 266). 이 때문에 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첫째요, 그 외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하여 유연장을 쓰고 관에 들어가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가미된 일련의 행위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한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길 되시며 그를 믿는 자와 함께하시기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시 31:24)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떨쳐 내어 놀라지 않을 수 있다(수 1:9).

또한, 성경적 웰다잉의 관심은 자기 한 사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개인이 성경을 존재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계와 타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성경적 웰다잉에서 타자의 존재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일반 사람들과 달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롬 12:4-8).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조화롭고 사랑으로 함께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과 공동체 내의 서로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동참함으로써 스스로를 도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삶에 이를 수 있다(Lane & Tripp, 2009: 139-148, 151-152). 그러므로 성경적 웰다잉은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

해야 하는지를 권면해야 한다.

사랑하는 주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죽음에 대하여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낙망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보다는 그가 천국에 들어가 기쁨의 상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박형룡, 1997). 데살로니가 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떠나보낸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음을 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므로 육체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를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것을 권면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의 상태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음을 환기한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 부활하여 천국에서 그리던 이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 자체보다 그 이후의 일에 항상 관심과 생각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원 형벌이 기다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도록 힘써 전해야 한다.

6회차에서는 이전 회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 하나님과의 영속적이고도 완전한 연합과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 부활 이후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는 곧 성경적 웰다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후 7회차의 질의 응답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다.

(2)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성경적 웰다잉의 권면의 방향은 죽음이란 어떤 것이고 주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성경적 웰다잉은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천국에 이르는 길 되심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기다

리고 바라는 지금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구원받아 죽음 이후 진정한 본향인 천국에 갈 것이니 이 땅에서의 삶에 열심을 다 하지 않고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에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 존재와 죽음,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새로워지는 것이다. Bavinck(2007: 455)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온전한 회복뿐 아니라 자신을 내적으로 새롭게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깨어 있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새로워지는 것이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인간의 자기 주도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기치 아래 재차 화합하고 인정하라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지난한 인생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의 고양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써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바라보며 사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다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깨달아 주의 뜻을 분별하며 변화되기를 힘써야 한다.

둘째, 행하는 것이다. Timothy S. Lane & Paul D. Tripp(2009: 293)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속에서 용기를 얻고, 진리로써 세워지며 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진정한 변화는 나쁜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대체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Lambert, 2015: 106).

믿는 자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셨다(행 10:4).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음을 말씀한다(엡 2:1). Bavinck(2007: 455)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주심에 인간은 선한 신분이 되고,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터 해방되어 존재가 변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서 사랑 가운데서 선으로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1-2)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한다(요일 3:18).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기쁨과 사랑으로 행하라는 명령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여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하여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살후 3:11). 이는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그것을 이겨내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벧전 2:12).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 앞에 행할 힘이 없어 낙망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마음을 인도하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살후 3:5). Driscoll & Breshears(2012: 190-191)는 다음의 인용문으로 인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애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든지,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완벽하게 반영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기든지 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붙잡아야 할 신성한 기회임을 보여주신다.

셋째,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필자는 목회 현장에서 연간 평균 15건 이상의 장례를 집행한다. 그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다. 만 90세의 어르신께서 소천하신 장례식이었는데, 상주를 비롯한 일가친척과 방문객 모두의 얼굴이 밝았다. 그 밝은 분위기는 사랑하는 어르신을 천국으로 보내드렸다는 명확한 이유가 주변인의 태도로

드러났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때문에 슬픔에 낙망하지도, 즐거움이 너무 과하지도 않은 기쁨이 있었다. 일반적인 장례식에서는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죽음 자체에 함몰되거나 '장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운 느낌에 눌리기가 쉽다. 그러나 이들은 장례예배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기쁨으로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같이 매 순간 천국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삶의 태도는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그리고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로 귀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울은 다음의 로마서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3-5).

그리스도의 기뻐하고 즐거워함은 그것이 순간을 넘어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을 향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쾌락과는 다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후 4:18). Lloyd-Jones(2007: 79)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착하기만 한다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진술한 것이 곧 복음을 자랑한 것이었음과 마찬가지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곧 소망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영예롭게 여긴다는 것이다(Lloyd-Jones, 2007: 102-103). 환난을 소망을 확신하게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은 기쁨을 가져다준다(Powlison, 2009: 69).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후 10:3-4)라는 바울의 언술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또한 이미 승리자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승리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어서 주를 피난처로 삼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한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시 73:28). 죄악 된 인간을 사랑하사 십자가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다.

III. 닫는 글

시대적으로 성경적 웰다잉이 필요한 때이다. 이전부터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작금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 더욱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개별적인 명칭을 가지지 않은 채 일반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웰다잉 개념과 프로그램을 차용하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교육이 이루어져 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 명칭을 제안하고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예시를 든 후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성경적 웰다잉은 영생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적 웰다잉 교육은 인간의 죄와 사망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바른 이해를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은 인간의 삶과 죽음, 영생, 천국과 지옥, 죽음에 대한 태도, 성화된 삶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경적 웰다잉 프로그램 참가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천국을 준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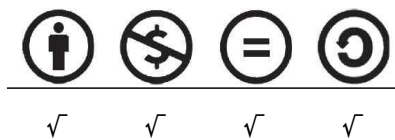
성경적 웰다잉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 김선숙(2007)은 당시에도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적 요구와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교회의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한국교회 죽음준비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교회 자체의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죽음준비교육의 내용 중 영적 욕구에 대한 부분이 미진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 셋째는 죽음준비교육을 위하여 강의와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박종현(2014: 92)의 연구에서도 한국교회 죽음준비교육의 특징으로 체계적으

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교단 차원의 교육과 매뉴얼, 다양한 교수방법의 연구와 전문 지도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회 내의 웰다잉 교육,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며 교수 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전히 현행하는 여러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들이 영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경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재차 고민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김미희, 2013; 박종현, 2014; 박주열, 2013; 장경희, 2017; 정정교, 2011).

교회의 주력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노년의 삶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민되어 많은 이들에게 바른 성경적 이해가 미치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5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06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07월 08일



【참고문헌】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 강종철 (1990). 기독교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기독교와 교육**, 5, 80-92.
-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회 (2016). **지혜로운 삶을 위한 웰다잉**. 서울: 구름서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회 (2017). **내 인생 저만치에 죽음이**. 서울: 북랩.
- 김기란, 최기호 (2009). **대중문화사전**. 서울: 현실문화.
- 김대동 (2010). **품위 있는 죽음과 생명의 상담**. 서울: 한들출판사.
- 김미희 (2013).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활용한 기독교 웰다잉 교육 연구.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란 (2016). 암환자의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 활동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숙 (2007). 한국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호 (2019). 고령사회 속 기독교 노인복지의 화두-“안티 에이징과 웰 에이징”을 대하는 기독교 윤리적 시선. **기독교사회윤리**, 43, 9-37. <http://dx.doi.org/10.21050/CSE.2019.43.01>
- 류혜옥, 정진희 (2004). 죽음의 의미와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7, 1-11.
- 맹주만 (2016).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웰다잉법. **철학탐구**, 44, 185-211. <http://dx.doi.org/10.33156/philos.2016.44..007>
- 박노권 (2005).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1-17.
- 박주열 (2013). 기독교 상담학적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현 (2014). 웰 다잉(well dying)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연구: 상하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룡 (1977). **朴亨龍博士著作全集**.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변영인 (2013). 기독교인의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 **복음과 상담**, 21, 61-91. <http://dx.doi.org/10.17841/jocag.2013.21..61>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2001). 한국 노인 기독교교육의 사례. **기독교와 교**

- 육, 9, 118-124.
- 신명숙 (2010). **기독교상담**. 서울: 학지사.
- 안경승 (2020). 기독교상담에서의 소망이해와 활용. **복음과 상담**, 28(1), 183-217.
<http://dx.doi.org/10.17841/jocag.2020.28.1.183>
- 안석 (2011). 죽음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기독교 상담적 활용: 노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1, 151-188.
- 윤득형 (2020). **죽음의 품격: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와 다사한 애도를 위하여**. 서울: 늘봄.
- 이관직 (2012).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대서.
- 이덕식 (2013). 노인복지 문제에 따르는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37, 275-312.
- 이원일 (2010). 죽음에 대한 노년기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26, 353-378.
- 이이정 (2004).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Andragogy Today**, 9(1), 33-65.
- 장경희 (2017). 기독교 죽음준비교육이 죽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익산 삼일교회 죽음준비교육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 (2017). 웰다잉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의 죽음태도, 자아통합감 및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대숙 (1998).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전요섭 (2022). 위드 코로나시대의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30(2), 107-132. <http://dx.doi.org/10.17841/jocag.2022.30.2.107>
- 정정교 (2011). 기독교적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영 (2006). **웰다잉을 위한 죽음의 이해**. 서울: 상상커뮤니케이션.
- 최광현 (2005). 노인상담과 기독교복지: 고령화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위기와 대응.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1-18.
- 최은주 (2015).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여가태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식 (2014).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경기: 김영사.
- 최홍석 (2005).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한국종교학회 (2001).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 한규량 (2021). 코로나19로 변화된 노년의 삶과 죽음. **윤리연구**, 1(133), 171-191.
<http://dx.doi.org/10.15801/je.1.133.202106.171>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Adams, J. E. (1979). *More than redemption: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Adams, J. E. (1981). **敎會相談學**(정정숙 역, *Competent to counsel*).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원전 1970 출판).
- Bavinck, H. (2007). **하나님의 큰일**(김영규 역, *Magnalia Dei*).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99 출판).
- Berkhof, L. (1991). **별코프 조직신학**(권수경, 이상원 역, *Systematic theology*).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1932 출판).
- Berkhof, L. (1996). **기독교 신학개론**(신복운 역,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서울: 성광문화사. (원전 1939 출판).
- Donnelly, E. A. (2013).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스테반 역, *Biblical teaching on the doctrines of heaven and hell*). 서울: 부흥과개혁사. (원전 2001 출판).
- Driscoll, M., & Breshears, G. (2012). **기독교 교리**(이용중 역, *Doctrine: What Christians should believe*). 서울: 부흥과개혁사. (원전 2010 출판).
- Erikson, E. H.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94).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Fromm, E. (2002). **인간의 마음**(황문수 역, *The heart of man*).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 1964 출판).
- Hoekema, A. A. (1990). **개혁주의 종말론**(류호준 역, *The Bible and the future*).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79 출판).
- Hoekema, A. A. (1997). **성경이 가르치는 자아형상**(정정숙 역, *The Christian looks at himself*).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원전 1975 출판).
- Johnson, E. L. (2012). **기독교 상담학**(전요섭 외 역, *Foundation for soul care*).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2007 출판).
- Kubler-Ross, E. (1997). **인간의 죽음**(성염 역, *On death and dying*). 서울: 분도

- 출판사. (원전 1969 출판).
- Kubler-Ross, E. (1998). *The wheel of life: A memoir of living and dying*.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 Lane, T. S., & Tripp, P. D. (2009).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김준수 외 역, *How people change*).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전 2006 출판).
- Lambert, H.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 개념**(김준 역,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11 출판).
- LaMothe, R. (2014). Pastoral counseling in the 21st century: The centrality of community.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68, 1-17. <https://doi.org/10.1177/154230501406800206>
- Lloyd-Jones, D. M. (2007). **로마서 강해 II: 확신**(서문강 역,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5, assurance*).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72 출판).
- Lloyd-Jones, D. M. (2008). **내가 자랑하는 복음**(강봉재 역, *I am not ashamed*). 서울: 복있는 사람. (원전 1986 출판).
- Owen, J. (2009). **죄 죽임**(김기탁 역, *On the mortification of sin*).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656 출판).
- Powlison, D. (1996).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유미영 역, *Power encounters*).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94 출판).
- Powlison, D. (2009).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김준 역,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서울: 그리심. (원전 2003 출판).
- Praamsma, L. (2011).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이상운, 김상래 역,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서울: 복있는 사람. (원전 1985 출판).
- Seligman, M. P. (2020).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김인자, 우민식 역, *Authentic happiness*). 서울: 몰푸레. (원전 2002 출판).
- Tisdale, S. (2019).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박미경 역, *Advice for future corpses and those who love them*). 서울: 로크미디어. (원전 2018 출판).
- Tillich, P. (2010). **조직신학 V. 하나님 나라론**(유장환 역, *Systematic theology Vol. V*). 서울: 한들출판사. (원전 1976 출판).

- Ursinus, Z. (200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원광연 역,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1992 출판).
- Wells, S. (2011). *Be not afraid*. Grand Rapids, MI.: BrazosPress.
- Wright, H. N. (2012). *Winning over your emotions*.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 pmg지식엔진연구소 (2021). 시사상식사전. 서울: 박문각. <http://www.pmg.co.kr>에서 2023년 5월 1일 인출.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20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체국가 발생현황. https://ncov.kdca.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에서 2023년 5월 1일 인출.
- 대한민국 통계청 (2023). 사망자수.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에서 2023년 5월 10일 인출.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년 5월 1일 인출.
- 동아일보 (2023). “존엄한 죽음은 기본권”... 유럽국가들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428/119065253/1>에서 2023년 4월 29일 인출.
- 머니투데이 (2023). 한국 자살률, OECD 1위...2위와도 압도적 격차 '썩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614000953195>에서 2023년 5월 28일 인출.
-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2023). 생사학에 대하여. https://www.lifendeath.or.kr/01_intro/life_1.php?PN=1&SN=10&TN=1에서 2023년 5월 10일 인출.

[Abstract]

Need for Biblical Well-Dying in Christians

Jeon, Yeong Jae*

As the Republic of Korea entered a super-aging society and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d, the question of how to prepare for death well became one of the main tasks of old age. Currently, death preparation education for Christians and the general public is similarly conducted under the same name of well-dying. This study proposes the name 'biblical well-dying', which has a Christian identity distinct from 'well-dying'. Well-dying is to prepare for the outcome of life, a good death, in which human subjectivity drives life and protects human dignity. Biblical well-dying is when a Christian looks at eternal life and lives by expressing the sovereignty of Christ only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Bible. Biblical well-dying education should take the method of directly exhorting the Word, as Jay. E. Adams insisted in nouthetic confrontation. The content of the biblical well-dying program should include human life and death, eternal life, heaven and hell, attitudes toward death, and sanctified life. Through the program, participants in the biblical well-dying program distinguish God's will and move on to a sanctified life that does their best in spiritual battles. This refers to the attitude of Christians in life that is renewed by words, modeled after Christ, rejoices, appreciates, and wins.

Key words: well-dying, well-dying education, biblical well-dying, death education, biblical counseling

* Korean Society for Christian Family Counseling Center / Resercher